**※ 동 보도자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배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메시지 보내기 취소’ㆍ’공감’ㆍ’답장’ 등 신규 기능 추가

이통3사, 채팅 + 이용 편의 대폭 제고

(채팅플러스)

**- 5분 내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 추가로 고객 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 메시지별로 감정 이모티콘을 표시하는 ‘공감’기능과 개별 ‘답장’기능도 선봬**

**- 별도 앱 설치 없이 최대 5MB 이하 파일 전송 및 문자 발송 무료 제공**

|  |
| --- |
| **엠바고 : 배포 시점 즉시 사용 가능** |

**[2021.5.10]**

|  |
| --- |
| *#1. “직장인 A씨는 친구들과 채팅방에서 대화 중, 연이은 상사의 질문에 지쳐 ‘본인이 찾아보고 물어보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친구들의 답변이 없어 메시지앱을 확인해보니 실수로 직장 상사에게 보냈었다. 깜짝 놀랐으나 상사가 보기 전에 급히 보낸 메시지를 취소하여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2. “40대 B씨는 메시지앱으로 가족 채팅방을 사용 중이다. 최근 10대 자녀가 B씨가 보낸 메시지에 하트를 달고, 해당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을 보며 가족간 편한 소통이 되는 것 같아 흐뭇한 느낌이다.”* |

이동통신 3사가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거 SMS, MMS에서 불가능했던 새로운 문자서비스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와 그룹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은 물론 선물과 송금하기도 가능한 메시징 서비스(RCS) ‘채팅+(채팅플러스)’의 신규 기능으로 ‘메시지 보내기 취소’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채팅플러스가 새롭게 제공하는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은 상대방의 메시지 읽음 여부와 관계없이 메시지 발송 5분 이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메시지 보내기 취소’는 메시지를 2초간 누를 때 나타나는 보내기 취소 버튼을 눌러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는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 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채팅플러스의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시리즈이며,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가능 단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팅플러스는 새로 선보인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 외에도 5MB 이하의 파일(사진, 동영상 등)과 메시지 전송 시 별도 데이터 차감 없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채팅플러스 이용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채팅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고객들이 편리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감’과 ‘답장’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공감’ 기능은 이모티콘으로 상대방의 메시지에 쉽고 재미있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며, ‘답장’ 기능은 이미 지나간 메시지에 댓글을 달아 편하게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공감’과 ‘답장’ 기능은 대화창에서 2초간 누를 때 나오는 이모티콘 선택과 답장 버튼을 눌러 각각 사용 가능하다. 해당 기능은 안드로이드 11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 고객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4월말 기준 채팅플러스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 합산 2,749만명으로, 서비스 가능 스마트폰은 69개 기종(삼성전자 54개, LG전자 15개)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신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채팅플러스 서비스 가능 단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 --- |
| **※ 사진설명**  이동통신3사는 채팅플러스 ‘메시지 보내기 취소’를 비롯한 ‘공감’, ‘답장’ 등 3가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고객들이 채팅플러스의 ‘메시지 발송 취소’, ‘공감’, ‘답장’ 등의 기능을 활용해 소통하는 모습.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주영호 매니저(02-6100-3840)**

**KT 홍보실 서영진 과장(010-5405-0915)**

**LG유플러스 언론홍보실 장효준 책임 (010-8400-2139)**

**<끝>**

**※ 참고 1. 채팅+(채팅플러스)란?**

채팅플러스는 스마트폰의 기존 문자메시지 서비스(SMS/MMS)가 진화한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 Rich Communication Services)로, 스마트폰에 앱 형태로 기본 탑재되어 있다. 고객들은 채팅플러스를 통해 ▲최대 100명 그룹대화 ▲최대 300MB 대용량 파일전송 ▲선물하기 ▲송금하기 ▲읽음확인 등의 기능을 별도 소프트웨어 추가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5MB 이하 파일(사진, 동영상 등) 및 메시지 전송은 별도의 데이터 차감없이 이용 가능하며 통신서비스 기반의 안정적인 품질이 타 메신저 서비스 대비 장점으로 손꼽힌다. (단, 5MB용량 초과시 가입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차감 또는 요금부과 등 상이)